

#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 ■ 8일 개원 임시총회 논의안건은...

제186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중앙총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22일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중법 개정안과 종헌중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회 위원 선출 및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게 된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중법 제·개정안으로 승려복지법 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 법인법 제정안 등이 손꼽히고 있다.

승려복지법 제정안은 출가수행자가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님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특히 현재 세입 65세 이상 노스님의 비율이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승려노후복지는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실정이다.

승려복지법 제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 전담기구로 조계종유지재

단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구성하고 승려복지의 책임은 종단과 교구가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려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출가수행자에게 수행연금,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 등을 제공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재정 조달은 1차적으로 총무원

### 해외특별교구법·법인법 승려복지법 제정안 '눈길'

과 교구 분발사 부담금, 목적 부담금 및 출연금 등으로 하고, 2차적으로 기부금, 회사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 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급여 및 주거, 수행보장 등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부터, 수행연금은 공포 후 3년 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특별교구법 제정안은 한국 불교의 국제화, 해외사찰 활성화, 국제포교 인력양성이라는 목적사

업의 중심축이 될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기 위한 중법안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1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조계종 스님이 설립한 종단 미등록 해외사찰의 종단 등록을 유도하고 해외 거주승의 승가 위 확립, 사찰의 재정적 분권에 대한 해결책 마련, 지역 사찰간 화합 도모 등을 위해서는 해외특별교구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과 후보자 추천동의 건 다뤄

법인법 제정안은 사찰과 스님이 설립한 법인의 종단 등록 절차와 함께 등록된 법인에 대한 종단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법안이다. 법인법에 따르면 법인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00사 00법인'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00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정

장은 조계종 소속 승려 이사가 2/3이상이어야 하며 재가자는 종단 등록 신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유지

재단과 선학원 대각회 등은 이사 전원이 조계종 승려여야 하며, 선학원과 대각회의 이사 가운데 1/3은 조계종이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법제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법제법 개정안과 교역직 총무원의 선출지 출마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총무원법 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출과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등을 통해 종단 주요 소임자를 선출한다. 각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재심회계위원 △조심회계위원 △법규위원 △소심심사위원 △종림학 교관관리위원 △인사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또한 원로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뿐만 아니라 대중사 특별전형 심사 동의, 동국대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종헌중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종헌중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기 255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게 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 종교지도자들이 '왕오천축국전' 관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종교지도자들이 지난 2월2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세계문명전 '실크로드와 둔황 해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을 관람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희중 한국천주교 대주교, 김영주 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 총무,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 임윤길 천도교 교령, 최근덕 성균관장 관장 등 20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이날 관람은 자승스님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 왕오천축국전과 한국문화 돌아보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종교인들은 전시를 둘러본 뒤 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회도 가졌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한반도 평화 기원 결사 추진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기원하는 5대 기획 사업을 펼친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2월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추본은 올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 그것만

### 민추본, 신계사 燈 달기 남북 소통·성지순례...

이 한반도 평화의 희망입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은 종단의 5대 결사 가운데 하나인 평화결사에도 적극 동참하려는 취지다. 민추본은 신계사 평화의 등달기 사업과 평화기원성지순례를 주력사업

으로 꼽았다. 등달기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진행했으며 2007년 이후 실시되지 못했다. 민추본은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해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성지순례는 그동안 다녀온 철원과 고성, 비무장 지대를 비롯, 서해5도 지역을 새롭게 추가해 실시한다. 또 오는 10월13일에 금강산 신계사에서 대규모로 성지순례 및 남북합동대법회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6월에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길'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와 불교평화통일컨텐츠 공모 전시회를 각각 실시한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사찰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소수력 시스템 적합

### 사회부, 연구결과 발표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지난 2월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문화유적지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료 나선 유권종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박사는 적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소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열 등을 제시했다. 발표 자료는 전문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지난 2010년 8월16일부터 20일까지 조계사를 비롯한 교

구분사와 말사 등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현장답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종단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청정도량을 지키고 사찰림 보호 등 환경 보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대부분 사찰에서는 냉·난방, 조명, 급탕 등 생활시설은 물론 종무소·식당 등 각종 부대시설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이나 문화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의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만만치 않다.

유 박사는 이같은 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사찰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화유적지 구역을 고려해 사찰 인근 주차장이나 주변계곡, 유후

부지 등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찰이 지리·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소비 에너지원이 전력에 편중돼 있음을 밝혔다. 전력의 경우 에너지원의 수급이 용이하고 전기를 활용한 냉·난방 기기의 활용이 잦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용 절감 면에서도 약 80%가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설치 규모가 큰 태양광이나 지열 에너지는 사찰의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양상이다. 또 태양광 시스템은 주변 생태를 파괴할 원인을 갖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스님은 "기름이나 전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가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 수덕사 주지후보 지운스님 선출



수덕사 신임 주지 후보에 현 부주지 지운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용산스님)는 지난 2월28일 경내 조인선원에서 개최한 임회에서 임회 의원 스님들의 추천과 방장 설정스님의 지명을 통해 차기 주지 후보에 지운스님을 선출했다. 지운스님의 임기는 용산스님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지운스님은 우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9년 해암스님을 계사로 수덕사에서 사미계를, 1975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범주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현장에서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지난 2003년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주는 '제9회 불교인권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인터넷과 트위터에서도 다 무위에 올랐다.

10년 가까이 된 카다피의 수상 사실이 불거진 것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국민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다. 카다피의 불교인권상 수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엄연한 현실'이다.

2003년 당시 불교인권위원회는 카다피의 불교인권상 수상에 대해 "자유와 정의 평등의 대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선구자적 역할

## 카다피 불교인권상 취소해야

을 높이 평가하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여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온몸으로 헌신한 지도자"라고 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면 카다피의 수상 이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의 카다피는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인권상 수상자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 명백한 사실이다.

그동안 불교인권위원회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인정받고 박수 받아 마땅하다. 열악한 상황에서 인권 향상을 위해 노

력한 공로자들에게 불교인권상이 수여됐으며, 역대 수상자들은 충분한 수상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카다피는 아니다. 더구나 사형제 폐지운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가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카다피에게 불교인권상의 '수상자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해 불교인권위원회는 물론 다른 수상자들의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편입생 모집공고

범어사승가대학은 화엄중주 의상조사의 창건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선찰대본산 범어사에서 전통교육의 중요성과 시대적 현실에 맞는 종단의 새교과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전통에 입각한 현대의 발전된 승가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 모집정원 \_ 1학년 00명 / 2학년 00명 / 3학년 00명
- 모집기간 \_ 불기2555(2011년) 2월 18일(금, 음1.16) ~ 3월 20일(일, 음2.16)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_ 1) 입학지원서 및 서약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각 1부  
2) 은사스님 추천서 2부  
3) 건강진단서(종합병원) 2부  
4) 승려증(행자교육필증, 수계증명서) 사본 2부  
5)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각 2부  
6) 사진(만의복장, 2×3규격) 4장  
※ 서류양식은 범어사 홈페이지 참조(www.beomeo.kr)
- 준비물 \_ 대가사, 만의(사미), 장삼, 발우
- 전형 \_ 서류심사, 면접
- 문의처 \_ 범어사 승가대학 051)508-3127  
범어사 중무소 교무국 051)508-3122~5
- 교통편 \_ 부산 노포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지하철 1호선 노포동역(승차) → 1구간(2분 소요) 범어사역(하차) 5, 7번 출구 → 범어사행 시내버스(90번) 수시운행(운행간격 15분)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승가대학 운영위원장 주지 여산 정여 · 승가대학 학장 초해 용학